DONDA STUDIO · GIRI AI LABS

감기 기운이 있는 것은 분명했지만: 오서로의 회고록

마스터 시네마틱 스토리보드북 & 프로덕션 큐시트

👥 등장인물: 3 | 📍 배경장소: 2 | 🗝️ 핵심소품: 4 | 🎬 전체 컷수: 10 CUTS

Engine: Google Gemini 3.8 Flash · Gotenberg Engine · Central Ledger Protected

ATTACHMENT 01

👥 등장인물 마스터 디자인 시트 (3)



주인공

오서로

아키타입: 고뇌하는 쇠약한 소설가

의상/외형: 헐렁한 베이지색 터틀넥 니트, 무릎이 튀어나온 헐렁한 감색 골덴 팬츠, 낡은 가디건.

상징 소품: 검은색 배럴의 금촉 만년필, 두꺼운 뿔테 안경



회상 속 인물 / 뮤즈

윤서경

아키타입: 기억 속의 아련한 옛 연인

의상/외형: 하늘색 셔츠 위에 걸친 아이보리색 조끼, 체크무늬 롱스커트.

상징 소품: 작은 은색 회중시계 목걸이



외부 조력자 / 현실 환기자

편집자 박

아키타입: 현실적이고 집요한 마감 독촉자

의상/외형: 정갈한 셔츠와 넥타이, 트렌치코트.

상징 소품: 원고 마감 수첩, 서류 가방

ATTACHMENT 02

📍 장소 및 배경 환경 마스터 시트 (2)



실내

오서로의 다락방 서재 겸 작업실

책들이 어지럽게 바닥까지 쌓여 있고, 창밖으로는 비 섞인 진눈깨비가 흩날리는 좁고 폐쇄적인 목조 서재.

조명: 스탠드 조명의 짙은 호박색 빛과 창문으로 스며드는 창백한 푸른빛의 대비.

실내/야외

과거 회상 속 간이역 대합실

서경과의 마지막 이별이 있었던 초가을의 한산한 시골 기차역 대합실.

조명: 노을빛이 길게 드리운 아련하고 따뜻한 오렌지빛 역광.

ATTACHMENT 03

🗝️ 핵심 상징 소품 및 오브제 마스터 시트 (4)



소품/필기도구

금속 만년필

손때 묻은 검은색 배럴과 잉크가 번진 금색 닙.

서사적 의미: 오서로가 글을 쓰는 유일한 도구이자 서경이 과거 선물했던 기억의 매개체.

소유/사용자: 오서로



소품/서류

200자 원고지 뭉치

기침 자국과 잉크 번짐, 구겨진 채 바닥에 뒹구는 수십 장의 육필 원고지.

서사적 의미: 작가의 압박감과 감기 기운으로 흐려진 의식의 투영.

소유/사용자: 오서로



소품/전자기기

다이얼 전화기

검은색 회전식 다이얼 유선 전화기.

서사적 의미: 편집자의 재촉과 외부 현실 세계와의 유일한 끈.

소유/사용자: 편집자 박



소품/생활용품

유리 찻잔과 감기약 봉투

김이 식어 표면에 기름막이 뜬 생강차와 뜯어진 누런 약봉지.

서사적 의미: 육체적 한계와 독감의 지독함을 보여주는 장치.

소유/사용자: 오서로

STORYBOARD CUTS

🎬 10컷 시네마틱 콘티 본문

10 CUTS TOTAL

SHOT #01 · 35mm 레트로 필름 룩 ⏱️ 4.5초 (00:00~00:04)



어질러진 책과 원고지 사이로 등을 웅크린 채 거친 숨을 내쉬며 글을 쓰는 오서로의 뒷모습이 보인다.

감기 기운이 있는 것은 분명했지만, 멈출 수는 없었다.

📍 어두침침한 다락방 서재, 비산하는 먼지 입자. | 👥 오서로 | 🗝️ 원고지 무더기, 스탠드 조명, 책장 | 🔊 거친 숨소리, 창문을 때리는 차가운 바람 소리

SHOT #02 · 50mm 매크로 렌즈 ⏱️ 3초 (00:04~00:07)



식은땀이 맺힌 손가락이 쥔 만년필 끝에서 잉크 방울이 뚝 떨어져 원고지의 격자선을 새까맣게 물들인다.

열이 머리끝까지 차오를수록, 단어들은 손끝을 벗어나 흩어졌다.

📍 초록색 격자무늬 원고지 표면의 거친 종이 질감. | 👥 오서로 (손) | 🗝️ 금속 만년필, 원고지 | 🔊 촉이 종이를 긁는 날카로운 서걱거림, 잉크 번지는 소리

SHOT #03 · 50mm 표준 렌즈 ⏱️ 4초 (00:07~00:11)



오서로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고, 충혈된 붉은 눈으로 헛기침을 토해낸다.

폐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차가운 쇠 냄새가 올라왔다.

📍 어두운 목조 벽면과 빽빽한 책등의 아웃포커싱 실루엣. | 👥 오서로 | 🗝️ 두꺼운 뿔테 안경, 식어버린 찻잔 | 🔊 마른기침 소리 '콜록, 콜록', 가쁜 호흡음

SHOT #04 · 28mm 광각 렌즈 ⏱️ 2.5초 (00:11~00:14)



책상 구석의 다이얼 전화기가 요란한 금속음을 내며 진동하고, 서로의 굳은 시선이 그곳에 꽂힌다.

세상은 내 병증 따위엔 관심이 없다는 듯 끈질기게 문을 두드렸다.

📍 구겨진 종이들이 널브러진 책상 한구석. | 👥 오서로 (시선) | 🗝️ 다이얼 전화기 | 🔊 날카롭고 찢어지는 듯한 기계음 벨소리 '따르릉-!'

SHOT #05 · 50mm 렌즈 ⏱️ 4초 (00:14~00:18)

SHOT #06 · 85mm 망원 렌즈 ⏱️ 5초 (00:18~00:23)



수화기를 귀에 가져다 대자 편집자 박의 독촉 목소리가 귓전을 때리지만, 서로의 동공은 허공을 배회한다.

편집자 박: '오 작가님, 오늘 자정입니다. 약속하신 결말은 완성되었습니까?'

📍 책장 뒤편의 흐릿한 암연. | 👥 오서로, 편집자 박(보이스) | 🗝️ 전화기 수화기 | 🔊 전화선 노이즈, 기계적인 수화기 너머의 건조한 음성



서로의 시야가 하양게 탈색되더니, 창틀 너머로 노을빛으로 물든 낡은 간이역의 환영이 겹쳐 보인다.

고열이 가져다준 유일한 자비는, 잊으려 애썼던 그 가을을 다시 불러온 것이었다.

📍 현실의 다락방 창문이 서서히 옛 기차역의 유리창으로 디졸브. | 👥 오서로 | 🗝️ 창틀, 흘러내리는 빗물 | 🔊 빗소리가 아득한 기적 소리로 변환되는 음향 효과

SHOT #07 · 50mm 소프트 포커스 ⏱️ 4.5초 (00:23~00:27)



나무 벤치에 앉아 있던 서경이 고개를 돌려 카메라를 바라보며 쓸쓸하지만 다정한 미소를 짓는다.

윤서경: '서로 씨, 글을 쓸 때의 당신은 늘 감기에 걸린 사람처럼 열정적이었어요.'

📍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간이역 플랫폼의 코스모스와 나무 기둥. | 👥 윤서경 | 🗝️ 나무 벤치, 가죽 손가방 | 🔊 살랑이는 바람 소리, 철길의 레일 울림

SHOT #08 · 24mm 와이드 렌즈 ⏱️ 3.5초 (00:27~00:31)



서로는 환각에서 깨어나며 책상 위로 엎어지듯 쓰러지고, 흩뿌려진 알약과 식은 찻잔이 덜컹거린다.

하지만 그녀는 떠났고, 남은 것은 열에 들뜬 나의 미완성된 문장들뿐이었다.

📍 어두운 서재 바닥, 널브러진 원고지들. | 👥 오서로 | 🗝️ 찻잔, 흩어진 알약, 만년필 | 🔊 찻잔 달그락거리는 소리, 책상을 쾅 치는 둔탁한 소리

SHOT #09 · 50mm 단렌즈 ⏱️ 4.5초 (00:31~00:35)



서로가 떨리는 손으로 흘러내린 안경을 고쳐 쓰고, 만년필을 꽉 쥐며 새 원고지의 첫 줄을 향해 펜촉을 댄다.

감기 기운 때문이었을까. 비로소 이 글의 마지막 문장이 무엇이

SHOT #10 · 35mm 와이드 렌즈 ⏱️ 5초 (00:35~00:40)



다락방 창문 안쪽에서 묵묵히 펜을 놀리는 서로의 작은 실루엣이 보이고, 화면 위로 제목이 페이드 아웃된다.

밤은 깊었고, 나의 독감과 긴 회고록은 드디어 끝을 맺고 있었

어야 하는지 선명해졌다.

📍 원고지 위로 드리운 작가의 굳건한 그림자. | 👥 오서로 | 🗝️ 금속 만년필, 새 원고지, 안경 | 🔊 종이에 힘주어 첫 획을 긋는 사각거림, 깊은 심호흡

다.

📍 눈 덮인 오래된 도시의 지붕들과 격자창. | 👥 오서로 (원경 실루엣) | 🗝️ 서재 창문, 도시 전경 | 🔊 창밖의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, 서서히 잦아드는 만년필 소리